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

손 영 애*

I.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

국가 수준에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지침이 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과 교육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학교 수준에서, 각 교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결정하는 변인들은 무척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을 이끄는 방향타가 교육과정인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하위 영역들의 교육 역시 그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 세대의 핵심적인 문화 내용으로서 지식, 사고 양식, 경험 등을 재구성한, 위로는 국가 수준에서부터 아래로는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계획으로서 고시된 문서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보다 상세한 목표나 내용을 담은 해설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사의 수업 계획을 밝힌 지도안, 학생들의 학습 계획서 등 여러 가지 자료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¹⁾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일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광병선(1986),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교육개반 42호, 한국교육개발원.

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일뿐 아니라 교실 안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 및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효과의 질적 변환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본고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문서화되는 교육과정 자료에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지도 내용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는 결국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교육의 내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읽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화하느냐는 읽기 교육을 위한 자료의 구성 및 교실의 읽기 수업 방법 및 교실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지만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및 실천의 결과 학습자에게서 구현되는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의 근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지도 내용의 체계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I.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의 의의

읽기 교육의 일차적이며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읽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교사가 해야 할 '무엇'이 읽기 지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개의 읽기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읽기를 지시하고 학생들의 읽은 결과를 점검하는 '과제 제시-결과 점검형'이거나 교사가 글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주석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언어 교육의 연구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읽기 교육에 반영되면서 이러한 읽기 교육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읽기 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의 문자 해독 수준을 거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읽기 능력

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개는 글의 내용에 대한 지도가 읽기 지도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국어과 교육은 읽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총평을 들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읽기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차 교육과정 이후 언어 사용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향하고 있으나 각 기능 영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언어 사용 기능들간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방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²⁾ 또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에 기능과 전략이 혼재되어 있어 읽기 지도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³⁾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읽기 교육의 계획과 실행 과정을 일관성있게 이끌어 나갈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읽기 수업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재의 구안, 지도 방법의 결정, 평가 방법의 선택 및 평가 자료 구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범주 및 범주들 사이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범주의 하위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학년(수준)별로 지도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계열성을 가지는가가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체계화의 밑바탕에는 읽기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읽기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이해 및 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년(수준)별 지도 내용이 계열성을 띄고 제시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읽기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학년별로

2) 박수자(1995), 독해 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3) 한철우(1995), 독서 지도의 개선 방향, 독서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독서학회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어떻게 차등을 두느냐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체계화의 노력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읽기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 될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읽기 영역을 통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Ⅲ. 제 1차~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 및 체계화 방식

국어과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여섯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어교육학이 부진했던 점 및 국어과 교육과 관련되는 제현상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집적시킬 장치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어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에 대한 인식, 국어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국어과 교육의 내용에 대한 관점 등은 국어교육학을 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각 시기의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설정 및 내용의 선정 조직을 통해 국어과 교육의 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통해 시도된 읽기 영역의 체계화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제 1차, 2차 국어과 교육과정⁴⁾

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지도 내용을 '기초적인 언어 능력/언어 사용의 기술/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기

4) 1, 2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진술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다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초적인 언어 능력'에서는 학습 요소(발음, 문자, 어휘, 어법, 문학)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언어 사용의 기술'은 언어가 사용되는 중요 장면(신문 잡지 읽기, 편지 읽기, 규약·게시·광고 읽기, 독서하기, 사전 참고서 이용하기, 도서관 이용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과 관련지어 흥미나 태도, 학습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는 크게 '문학과 예술/언어 과학'으로 나누어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영역과 관련지어 '문학과 예술'을 살펴보면 장르별로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차 교육과정의 학년별 지도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지도 내용을 토대로 다음 <표 1>과 같이 선정되어 있다. 1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 지도가 강조되어 있다. 이 시기는 읽기 지도의 본령을 독서 지도로 보고 있어 읽기 기능에 대한 인식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실용문 및 문학 작품 읽기 지도가 주요한 지도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급 문고 및 도서관의 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습 방법의 학습이 다른 시기에 비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 학교 국어(一)의 읽기 영역의 경우에는 독해 기능 및 독해 전략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이 대조적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현대문학 및 고전문학, 그리고 국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드러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읽기 영역의 성격은 독해 지도와 독서 지도를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시기의 학년별 지도 내용의 선정 조직은 읽기 기능의 계열화보다는 학습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장르에 따라 계열화를 피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1차, 2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지도 내용은 다음에 살펴볼 3차나 4차의 경우와는 달리 학년간에 지도 내용의 중복을 보이고 있지 않다. 1차 교육과정에서 태도와 관련되는 항목의 계열성이나 문학 감상과 관련되는 항목의 계열성은 눈여겨 볼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 표 1 > 제 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⁵⁾

1차 중 1	1차 중 2	1차 중 3	1차 고교 국어(一)
(1)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독독할 수 있다. (2) 문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3) 신문 잡지를 흥미를 가지고 읽는다. (4) 여가를 즐기며 독서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5) 양식을 선배하여 읽는다. (6) 국어 사전의 사용에 익숙해진다. (7) 한글 문과 도시의 분류와 성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8) 편지를 읽고 자기 쓰여진 용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 (9) 일기나 전기, 기록 등을 빠르게 읽는다. (10) 운분의 리듬을 안게 한다. (11) 이야기나 소설의 줄거리를 빠르게 잡는다. (12) 감상문이나 기행문을 읽는데 흥미를 느낀다. (13) 화제이나 시나리오를 읽는데 흥미를 느낀다. (14) 현대문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안다.	(1) 독독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낭독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문장 표현에 주의하며 읽는다.* (3) 신문 잡지 등의 중요한 기사를 찾아서 읽는다. (4) 독서를 통하여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도서 목적을 만들고 이를 빠르게 문장 정리할 수 있다.* (6) 각종 사전 참고서 및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한다. (7)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경영에 대하여 안다. (8) 사회적인 편지를 읽고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한다. (9) 감상문이나 수필 기행문 등을 읽고 내용에 대하여 생각한다. (10) 시작 표현을 감상한다. (11) 긴 소설을 짧게 요약하여 본다. (12) 화제이나 시나리오를 읽고 이해한다.* (13) 우리 나라의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및 그의 작품에 대하여 연구한다. (14) 우리 나라 고전문학으로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안다.	(1)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2)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기사에 관심을 갖는다.* (3) 제시 글과 및 규약문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4) 독서 노트를 만들어 독후감을 기록한다. (5) 독서 안내 시문, 목차, 색인, 도표 등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6) 한가지 사건이나 참고사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내용을 비교하여 생각한다. (7)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하는 법과 사칙을 선택하는 태도 및 습관을 기른다. (8) 실용적인 편지를 읽고 용건을 빠르게 처리한다.* (9) 일기 편지 등을 읽고 그 배경이 되는 시대나 생활을 생각한다.* (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문을 감상한다. (11) 이야기나 소설에 작가의 견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 읽는다. (12) 수필을 읽고 못가는 데로 쓴 심정을 알게 된다. (13) 논문을 읽고 논리적인 짜임이나 논지의 전체를 생각한다.* (14) 화제이나 시나리오의 연중에 대하여 연구한다. (15) 현대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16) 널리 알려진 고전 작품을 읽는다. (17) 우리말로 번역된 세계의 뛰어난 작품을 읽는다.	1.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체득한다. 가. 책을 읽는 목적을 뚜렷이 한다. 나. 주의를 집중한다. 다. 단락의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 단락과 단락의 연결을 생각한다. 라. 문장의 주안점을 알아내기 위하여 어느 것이 중요한 사실이며 어디에 중점을 두었나를 안다. 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를 확장한다. 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을 많이 안다. 사. 문장 전후의 관계, 문맥 등으로 미루어 처음 보는 낱말의 뜻을 사전을 찾지 않고도 짐작한다. 아. 읽은 글의 내용을 이미지는 읽이나 또는 자기의 경험과 연결시켜 거기에 비유 있는 것과 자기의 경험을 비교하여 본다. 자. 글의 줄거리나 요점을 직이름으로써 책에 쓰여진 사실이나 재료를 정리한다. 차. 재료를 알리고 하거나 독서한 일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하여 책을 뒤엎어 읽거나 필요한 대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 카.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낸 것을 빠르게 읽는다. 키. 독서 노트를 만들어 독후감을 기록한다.* 코. 빨리 읽기 쿄. 눈의 폭, 눈의 운동과 리듬 증진하기 2. 논설 논문을 읽는데 익숙해진다. 가. 논문의 논리적 짜임이나 논지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읽고 대의나 중심 사상을 빨리 잡는다. 나. 줄거리를 많이 안다.* 3. 문학 학습의 목표 4. 고전 학습 5. 국어 문제

2. 제 3차 국어과 교육과정

제 3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지도 내용의 체계화에 상당한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떤 내용(지도 요소)을 어떤 형식(주

5) *는 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항목들임.

요 형식)에 담아서 가르칠 것인가, 그 형식에 담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제재 선정의 기준)를 교육과정 문서에 담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지도 내용의 체계화에 있어 그 틀을 마련한 점에서 다른 시기의 교육과정에 비해 돋보인다. 그러나 '지도 요소, 주요 형식, 제재 선정의 기준'이라는 삼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읽기 기능에 대한 인식은 1, 2차에 비해 뚜렷해졌지만, 학년별 지도 내용의 계열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년별 목표의 형식성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⁶⁾, 그 목표에 따른 지도 내용의 선정 조직에 있어서도 학년별 차이를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읽기 영역의 학년별 '지도 요소'는 <표 2>에서 보듯이 학년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이 전혀 계열성을 띄지 못한 것은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세분화한 데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 하위 기능에 있어 학년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일이나 그것을 언어적 진술로써 차이나게 표현하는 일은 '기능'의 특성으로 보아 부적절한 시도로 보인다.

1학년 읽기 영역의 '주요 형식'에서는 일기, 편지, 광고문(광고문, 선전문, 표어 등), 법규, 보도문, 잠언(격언, 금언, 속담, 고사 등), 기록(회의록, 관찰 기록 등), 보고서, 생활문, 감상문, 설명문, 논설문, 전기, 기행문, 실화, 설화, 시, 시조, 수필, 소설, 극(라디오 방송극 극본, 텔레비전 및 영화 시나리오, 희곡 등) 등 21개 항목에 걸쳐 각종 장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주요 형식'에 제시된 장르는 학년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2학년에서는 20개항(법규가 빠졌음)이, 3학년에서는 17개항(광고문, 법규, 생활문, 보고서가 빠졌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주요 형식에서 제시한 여러 형식의 글들이 제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형식을 통해 무엇을 지도해야 할지가 교육과정에서부터 드러나지 않아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어과 읽기 수업은 어느 단원이나 어느 글이나 거의 유사한

6) 졸고(1990), 국어과 교육 과정, 국어 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학술 세미나 자료집, pp. 109~131.

형태로 글을 읽고, 문단 나누고 요지 찾고 글의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차 교육과정의 예를 보면 읽기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글의 형식을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계열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학습 활동의 어려움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글의 형식보다 글의 내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재 선정의 기준’은 학년의 차이 없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별 수준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재 선정의 기준’이 읽기 자료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이어서 학생들의 수준 및 읽기 목표를 고려하여 읽을거리를 선정하고 교재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차 교육과정 시기의 ‘제재 선정의 기준’은 이후 4차~6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제재 선정의 실질적인 지침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3차 교육과정은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읽기 기능을 읽기 영역의 주요 지도 내용으로 삼아 세분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도 내용의 계열화까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 표 2 > 제 3차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

3차 중 1	3차 중 2	3차 중 3	3차 국 어 1
(1) 흥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읽기 (2) 독서 습관을 길러서 이가글 선행하기 (3) 양서를 선택해서 심정한 태도로 읽기 (4) 비판적으로 읽기 (5) 사실 활용하기 (6) 어휘 늘리기 (7) 대문의 요지, 대문 상호간의 관계, 대문과 글 전체와의 관계 읽기 (8) 문장의 선독, 저서 관계 읽기 (9) 어법에 유의하면서 읽기 (10) 어구의 문맥상의 의미 읽기 (11) 글의 형식 읽기 (12) 글의 제원과 글거리 읽기 (13) 글의 리듬과 호랑 읽기 (14) 글의 소재, 주제 및 글 본 의도나 독의 읽기 (15) 감동을 체험하고 감동 살리기 (16) 효과적인 표현 익히기 (17) 글의 내용을 바꾸려 하면서 읽기 (18) 의견이나 주장의 가부, 서부 파악하기 (19) 독서 범위 넓히기 (20) ■로 정리하게 독독하기 (21) 글의 형식이나 내용에 맞게 낭독하기	(1) 1 (1) (2) 1 (2) (3) 1 (3) (4) 개방적인 심정으로 읽기 (5) 1 (4) (6) 읽고작고 활용하기 (7) 1 (6) (8) 1 (7) (9) 1 (8) (10) 1 (9) (11) 1 (10) (12) 1 (11) (13) 1 (12) (14) 1 (13) (15) 1 (14) (16) 1 (15) (17) 1 (16) (18) 1 (17) (19) 비유된 뜻 읽기 (20) 1 (19) (21) 1 (20) (22) 1 (21) (23) 1 (22) (24) 말재미 읽기 (25) 독후감 정리하기	(1) 1 (1) (2) 1 (2) (3) 1 (3) (4) 2 (4) (5) 1 (4) (6) 2 (6) (7) 1 (7) (8) 1 (8) (9) 1 (9) (10) 1 (10) (11) 1 (11) (12) 1 (12) (13) 1 (13) (14) 1 (15) (15) 1 (16) (16) 국문어의 개성적 다양성 읽기 (17) 1 (17) (18) 2 (19) (19) 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읽기 (20) 1 (19) (21) 읽은 바를 되새겨 자기 수양에 힘쓰기 (22) 1 (20) (23) 1 (21) (24) 1 (22) (25) 2 (24) (26) 2 (25) (27) 말술해 보기	(1) 읽기의 바른 태도 (2) 효과적인 독서법 (3) 효과적인 낭독법 (4) 필요한 저서 선택법 (5) 여러 문장 형식의 특징 (6) 읽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 (7) 읽은 내용에 대한 비판과 감상 (8) 암시된 내용의 이해 (9) 참고 자료 활용법 (10) 읽은 내용의 유용한 처리 (11) 글의 체형

3. 제 4차 국어과 교육과정

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내용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셋으로 설정하였다. 3차 시기까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활동을 중심으로 설정했던 내용 영역을 ‘표현·이해’로 묶어 제시하고, 언어(문법)와 문학과 관련되는 지도 내용들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현·이해’ 영역의 설정은 언어 사용의 과정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현·이해’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읽기 지도 내용을 ‘— 하며 읽는다.’ 형식으로 표현한 진술 방식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차 시기까지 읽기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문학 관련 지도 내용이 ‘문학’이란 영역으로 독립해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이 설명이나 논증적인 글 읽기에 국한되고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은 3차에 비하여 학년간의 중복을 어느 정도 피하고 있고 각 학년에 제시된 지도 내용들도 자체의 논리성을 띠고 있다. 글의 내용 이해와 관련되는 항목, 글의 구조 이해와 관련되는 항목, 표현과 관련되는 항목, 비판적 읽기 기능과 관련되는 항목, 문종의 이해와 문종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는 항목, 학습 방법의 학습과 관련되는 항목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4차로 오면서 읽기 기능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도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한결 체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

4차 중 1	4차 중 2	4차 중 3	4차 고 국어 1
(1) 글의 줄거리 요지, 주제 및 소재를 파악하며 읽는다.	(1) 1 (1) (2) 1 (2)	(1) 1 (1) (2) 1 (2)	(1) 1 (1) (2) 1 (2)
(2) 글의 짜임,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다.	(3) 1 (3)	(3) 1 (3)	(3) 여러 가지 표현법을 이해하고 지은이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3) 여러 가지 표현법의 효과를 이해하며 읽는다.	(4) 일반적인 명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구별하며 읽는다.	(4) 논리의 전개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4) 글의 내용을 바르게 평가하며 읽는다.
(4) 질문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5) 1 (5) (6) 1 (6)	(5) 1 (5) (6) 글의 내용을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다.	(5) 생각된 내용을 문맥을 통하여 주리하며 읽는다.
(5) 생략된 사실, 사건, 의견을 주리하며 읽는다.	(7) 1 (7) (8) 1 (8)	(7) 1 (7) (8) 글의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6) 3 (8)
(6)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바르게 읽고 읽은 글을 간주린다.	(9) 교양에 필요한 책을 고루 찾아 읽는다.	(9) 표기적으로 낭독하거나 정독한다.	(7) 여러 내용의 책을 고루 많이 읽는다.
(7) 글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한다.	(10) 1 (10)	(10) 여러 가지 내용의 책을 고루 찾아 읽는다.	
(8) 바르게 낭독하고 바르게 읽는다.		(11) 1 (10)	
(9) 독서에 따라 필요한 책을 찾아 읽는다.			
(10)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발전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4차 시기의 읽기 영역의 학년별 지도 내용에서도 학년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과서는 문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각 단원의 첫 페이지에는 그 단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구성 방식 및 단원 구성 체제가 큰 변모를 보였음에도 1-3학년까지의 교과서에서 학습의 계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교육과정의 이러한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 실린 글의 내용만 다를 뿐 그것을 읽기 자료로 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읽기 기능의 확인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교육과정을 통해 읽기 기능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으나, '문학' 영역의 설정으로 읽기 영역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4차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은 5, 6차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4. 제 5차 국어과 교육과정

3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내용'은 읽기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내용들을 자세하게 나열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4차, 5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두 항목 정도는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학년간의 중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3차와 5차의 교육과정에 제시한 내용 항목의 진술 방식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차의 경우는 활동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차 교육과정에서는 '글의 짜임과 줄거리 알기'로 제시했지만 5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나 사건의 제시 순서에 유의하여 읽고 그 줄거리 말하기, 각 문단의 중심 단어나 내용을 찾고 이를 관련되는 것끼리 다시 묶어가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지도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에서 활동 방법(읽기 전략 혹은 읽기 활동의 유형-제목 붙이기, 비교하기,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 등)에 대한 정보를 담으려 했던 노력은 교육과정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 수준의 문서, 교과서 개발에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만 국한하지 않고 교실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자료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4 > 제 5차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 지도 내용

5차 중 1	5차 중 2	5차 중 3	5차 고 국어 과목
(1)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각 글의 줄거리, 주제, 소재를 찾기	(1) 신문 기사, 잡지 서적, 광고문 등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을 알고, 읽는 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1) 글에서 사실, 의견, 상상, 느낌 등을 표현한 부분을 찾기	(1)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이해한다.
(2)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2) 글이나 도표 등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기	(2) 읽은 글의 내용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	(2) 글의 소재, 줄거리, 요지 및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3) 한 편의 글에서 긴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그 느낌 점을 말하기	(3) 글이나 도표 등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기	(3) 경험이나 지식 또는 문맥으로 비추어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라하기	(3) 글의 짜임, 맥락 관계를 분석, 파악하며 읽는다.
(4) 글의 유형이나 읽는 목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읽기	(3) 1 (6)	(4) 제목만 보고 글의 내용을 추측하고, 추측한 내용과 읽은 내용을 비교하기	(4) 여러 가지 표현법을 이해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5) 글을 읽고 줄거리, 소재, 주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4) 글의 소재, 주제, 줄거리 등에 근거하여 그 글에 얹혀진 재목 붙이기	(5) 글의 한 부분만 읽고 나머지 부분을 추측한 후, 추측한 내용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기	(5) 내용이 특징, 대상,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선정 조직되었는지 종합, 판단하며 읽는다.
(6) 내용이나 사건의 제시 순서에 유의하여 읽고 그 줄거리를 말하기	(5) 각 문단의 중심 단어나 내용을 찾고 이를 관련되는 것끼리 다시 붙여 가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기	(6) 2 (5)	(6) 경험, 지식, 문맥으로 비추어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며 읽는다.(중3-(3))
(7)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6) 문장과 문장, 또는 문단과 문단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7) 장면, 인물,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7) 여러 유형의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읽는다.
(8) 글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차례로 이해하기	(7) 단어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8) 글 속에 나오는 사건의 전개 순서, 사건의 사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상상하여 말하기	(8) 여러 가지 내용의 책을 고루 찾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한다.
(9) 글에서 가리키는 말과 있는 말을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8) 1 (10)	(9) 1 (10)	
(10) 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한 부분을 찾고, 의견이나 느낌이 사실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이야기하기	(9) 생각이나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그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10) 2 (10)	
(11) 글에서 인물, 사건, 장면, 사물 등을 설명하거나 묘사한 부분을 찾고, 그 직접성에 대하여 말하기	(10)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고, 구상과 표현의 차이와 직접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기	(11) 같은 일이나 사건에 대한 주장이나 느낌을 나타낸 글을 비교하여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신뢰성을 판단하기	

5차 교육과정 시기의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은 전반적으로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다. 활동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년별 지도 내용을 계열화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하며 읽기 활동의 방법만으로 학년간의 지도 내용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학년의 지도 내용에서는 '추론하기'와 관련되는 항목이 (3), (4), (5), (8) 4개나 되는데 다른 학년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학년 수준에 제시된 지도 내용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도 그리 뚜렷하지 못하고 각각의 내용 항목이 포괄하고 있는 정보가 균질적이지도 못하다. 즉, 어느 항목은 전략과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1-(6), 2-(5)와 같은 경우) 어느 항목은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예를 들어 1-(3), 3-(1)과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5차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지도 내용은 읽기 수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읽기 기능 및 읽기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전략의 차이에 의한 지도 내용 계열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4차와는 달리 읽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읽기의 대상에 있어서도 문학적인 글까지 포괄하고 있다.

5.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은 그 구성 체제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각 교과와 교육과정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학년별 지도 내용,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와 성격, 목적, 내용 체계, 학년별 지도 내용,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와 성격을 밝힌 것, 내용의 체계를 제시한 점이 다른 시기와는 구별된다. 국어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구성 체제를 따르고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국어과의 지도 내용의 체계화를 시도한 것은 6차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과 교육 관련 집단의 사고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힘 입어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도 6차에 와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 체계는 '읽기의 본질, 읽기의 원리, 읽기의 실제'

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의 본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읽기의 특성, 읽기의 여러 가지 방법 및 상황’과 관련되는 개념적인 지식이고, ‘읽기의 원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단어 및 내용의 이해, 평가 및 감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원리, 즉 절차적 지식들이다. ‘읽기의 실제’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목적(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으로 쓰여진 읽을거리를 경험할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또한 읽기와 관련되는 태도 및 습관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내용 체계는 아무런 사전 지도 없이 ‘읽어 보라’는 식의 읽기 지도나 글의 구성 방식이나 표현 방법, 혹은 글의 내용을 해설하는 식의 읽기 수업을 지양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읽는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읽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는 방법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6차의 각 학년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들은 내용 체계의 하위 범주에 따라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간의 중복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학년별 지도 내용들도 각각 어떤 기능을 가르치려고 하는지가 비교적 명시적이다. 내용 체계상의 ‘원리’와, ‘실제’를 묶어 지도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각 항목의 진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한다’이다. 여기서 ‘무엇’은 읽기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읽기 기능 혹은 읽기 활동이다. 6차의 읽기 지도 내용은 내용의 선정 및 제시 방법이 내용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지도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략+기능’의 형태로 진술된 것 뿐 아니라(1-(3), 2-(5), 3-(3) 등과 같은 경우) ‘활동 +기능’(1-(6), 1-(8), 1-(9), 1-(10), 2-(8), 3-(8)과 같은 경우)의 형태로 진술된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앞에 진술된 내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군더더기인 경우가 많다. 즉, 읽기 기능과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략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5차 교육과정 시기에 비하여 진전된 모습을 보이거나 기능 수행에 대한 전략적 지식들의 제시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은 지도 내용의 체계화라는 면

에서 큰 획을 긋고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자체가 '내용 체계'를 설정하여 각 영역의 지도 내용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잡다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내용들에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줌으로써 학년간의 계열성 및 학년내의 각 지도 내용 사이의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상당 수준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선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5 >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지도 내용

6차 중 1	6차 중 2	6차 중 3	6차 고 국어 과목
<p><읽기의 본질></p> <p>(1)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인물을 말하여 보고 읽기의 과정에 대하여 안다.</p> <p><읽기의 원리와 실제></p> <p>(2) 글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사진상 의미와 문맥상 의미를 비교한다.</p> <p>(3) 글에서 각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여 보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p> <p>(4) 글에서 지시어를 찾아 보고, 지시하는 내용을 파악한다.</p> <p>(5)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 보고 각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여 말한다.</p> <p>(6)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 보고, 각 글의 속거리나 주요 내용을 간주어 말한다.</p> <p>(7) 글에서 사실을 표현한 부분,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의견이나 느낌을 사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한다.</p> <p>(8)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상상이나 분위기 등에 맞게 표현적으로 낭독한다.</p> <p>(9) 글에서 인물, 사건, 장면, 사실 등을 설명하거나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사실성에 대하여 말한다.</p> <p>(10) 글을 읽어보고, 인물의 언어나 행동을 비교하여 말한다.</p> <p>(11) 글이 사진이나 액자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p>	<p><읽기의 본질></p> <p>(1) 읽고 있거나 경청한 것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의 그렇지 않은 글을 읽을 때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여 보고, 지식과 경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안다.</p> <p><읽기의 원리와 실제></p> <p>(2) 수어권 단어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고,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p> <p>(3) 글을 읽어 보고, 지식이나 경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각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p> <p>(4) 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에 유의하며 글 전체의 제임을 파악한다.</p> <p>(5) 각 문단에서 핵심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전달하는 것끼리 묶어 가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p> <p>(6)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p> <p>(7)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 보고, 제목이나 내용, 소재 등과 관련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p> <p>(8)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어 보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밝힌다.</p> <p>(9) 읽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 보고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p> <p>(10)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표현상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말한다.</p> <p>(11)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독서 습관을 가진다.</p>	<p><읽기의 본질></p> <p>(1) 여러 종류의 글을 읽을 경험을 말하여 보고 글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안다.</p> <p><읽기의 원리와 실제></p> <p>(2) 글에서 함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단어가 불러 일으키는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말한다.</p> <p>(3) 사건의 전개 순서,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상상한다.</p> <p>(4) 글에서 소재와 주제의 관계를 말하여 보고 소재가 주제로 어떻게 형성화되는지를 파악한다.</p> <p>(5)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어 보고, 표현의 차이에 대하여 말한다.</p> <p>(6) 글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단어 찾아보고 원래의 뜻과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비교하여 말한다.</p> <p>(7)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여러 글을 비교하여 읽어 보고 논지나 관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p> <p>(8)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어 보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밝힌다.</p> <p>(9) 읽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 보고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p> <p>(10)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표현상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말한다.</p> <p>(11)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독서 습관을 가진다.</p>	<p><읽기의 본질></p> <p>(1)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안다.</p> <p>(2)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을 안다.</p> <p>(3)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의 여러 가지 실태를 안다.</p> <p><읽기의 원리와 실제></p> <p>(4) 글의 유형과 읽는 목적에 맞게 읽기의 방법을 선택한다.</p> <p>(5)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휘력을 확장한다.</p> <p>(6) 글자가 복잡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한다.</p> <p>(7) 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에 유의하며 글 전체의 제임을 밝힌다.</p> <p>(8) 한 편의 글을 읽기까지 읽고 중심 내용을 찾아 주제를 파악한다.</p> <p>(9) 글을 읽고 경험, 지식,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각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p> <p>(10)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에서 구성 및 표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밝힌다.</p> <p>(11)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나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p> <p>(12) 글의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등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한다.</p> <p>(13)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폭넓게 찾아 읽고, 읽는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p>

IV.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

1.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범주

1~6차 교육과정에서 선정 조직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읽기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정한 지도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적인 언어 사용에서 공적인 언어 사용의 순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순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계열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⁷⁾ 지금부터 제안하려 하는 체계화의 방안은 1~6차 교육과정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한다.

1~6차 교육과정을 통해 읽기 지도 내용으로 기술된 것들이 읽기 기능 혹은 읽기 전략, 혹은 읽기 활동 그리고 읽기와 관련되는 태도 및 습관, 학습 방법의 학습과 관련되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은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이 제시되는 과학이나 사회 혹은 수학 과목과는 다르다. 읽기 영역에서의 지도 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박영목(1995)에서는 독해 능력 신장을 위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독서의 기능, 독서의 특성, 독서의 심리적 과정, 독서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단언적 지식'과 독해 기능 수행 및 독해 전략에 관한 '절차적 지식' 그리고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이러한 범주는 6차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와 다르지 않다.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자는 읽기에 의욕을 갖고 몰두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고무되어야 하고 왜 읽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의식하면서 읽도록 해야 한다. 또한

7) 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지도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로서 이를 밝히고 있다. 4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뚜렷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내용을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결론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2-(4)일반적인 명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구별하며 읽는다. 3-(4)논리의 전개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계획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읽기 경험을 쌓아 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이나 박영목(1995)에서 제시한 것처럼 읽기의 본질에 관한 개념적 지식, 읽기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지식 그리고 올바른 읽기 태도와 습관이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이 된다. 이러한 지도 내용 중에서 체계화 논의의 핵심은 읽기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지식이다. 읽기의 본질에 관한 개념적 지식이나 읽기와 관련되는 바람직한 태도 및 습관은 해당 단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읽기 기능의 수준과 관련지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노명완(1994)은 기능(skills) 신장 교육이 효과적인 전략 사용의 교육으로 바뀐 것은 학습에 대한 지적 과정을 상호 작용 이론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데서 기인하며 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본질’과 ‘원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은 이러한 언어 교육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 전략적 지식 중심의 접근법 이외에 이대규(1995)의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 언어 교육의 내용으로 ① 언어 자료에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들, ② 언어 자료를 구성하는 단위들, ③ 언어 자료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방법들을 가리키는 용어들과 그 개념들, 이러한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명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개념은 ‘제재와 주제/낱말, 문장, 문단/서론, 본론, 결론/분류, 정의, 분석, 서사, 묘사, 특수화, 일반화, 귀납, 연역, 비교, 대조’와 같은 것들이다. 국어과의 목표는 이러한 내용(개념이나 명제)들을 기억하거나 사용하거나 발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대규(1995)는 개념과 명제 외에 절차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절차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절차는 명제를 사용하여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절차는 전략적 지식과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⁹⁾ 이대규(1995)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사학에서의

8) 노명완(1994), 읽기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제5회 국어교육발표대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7-9.

9) 이대규(1995)는 국어과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절차로 ‘요약 절차, 작품 분석 절차, 작품 해석 절차, 작품 평가 절차, 비문학 작품의 재조직 절차, 비문학 작품의 조직 절차’를 들고 있다. 이 절차와 관련되는 목표로 절차의 기억, 절차의 사용, 절차의

주요 개념들이 읽기 교육 전반을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¹⁰⁾ 그러나 읽기 지도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이해시켜야 할 개념들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읽기 기능, 읽기 전략, 읽기 자료

제 5차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사용 기능'이란 말은 문제 해결 기능, 사고 기능과 동질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사고력의 신장과 크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기능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 기능 중심의 읽기 교육과 전략 중심의 읽기 교육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능'과 '전략'에 관해서는 노명완(1996)에 잘 정리되어 있다.¹¹⁾ 본고에서는 읽기란 행위 수행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이란 용어를 한정짓고 전략이란 읽기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선택되고 조절되고 활용되는 지식, 방법으로 한정한다.¹²⁾

언어 과정은 일과적이며 또한 총체적이다. 언어 과정의 일과성이란 모든 언어 활동은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는다는 것이다. 언어 과정의 총체성이란 하나의 독립된 표현 또는 이해 과정 속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표현 이해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언어 기능이 동시에 동원된다는 뜻이다.¹³⁾ 언어 과정의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읽

발견을 들고 있다. 명제들로 제시된 각각의 절차들을 살펴보면 여기서의 절차는 읽기 기능 수행 중에서 선택되고 조절되고 활용되는 절차적 지식의 의미보다는 선조적인 순서를 드러내는 고정된 지식의 의미가 강한 듯하다.

10)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11) 노명완(1996), '국어과 교육 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 과정 개발'(김대행)에 대한 토론, 敎育課程研究 제14권 제2호, pp. 47~49.

12) 읽기 기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접근은 이상영(1995) 참조.

'기능, 전략, 능력'에 대한 정리는 천경록(1995) 참조.

13) 노명완 외 공저(1994), 國語科敎育論, 갑을출판사, pp. 86~87.

기 기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기능을 계열화하는 것은 읽기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할 뿐더러 읽기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구안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각 단계(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활동의 수준을 적절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읽기의 과정이 총체적이라고 해도 교육의 장에서는 기획이 필요하고 기획에는 단계의 설정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각 단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읽기 기능'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든 읽기의 과제 혹은 과제 수행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읽기 전략'은 그 과제(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효율적인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은 요약하는 글의 구조나 내용, 서술 방식 혹은 글의 최상위 구조나 저시 구조 혹은 미시 구조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과제 수행에 동원되는 전략 및 전략의 사용 환경(텍스트 특성)은 읽기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읽기 지도의 내용을 계열화하는 과정은 읽기 기능 수행에 관여하는 전략들을 개발하고 그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요인을 추출하여 읽기 수준의 단계를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은 6차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시도된 계열화 작업을 좀더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교육과정에서 내용 항목을 진술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능한 독자는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읽기 전략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의 내용과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읽기 전략이란 글의 내용과 구조를 활용하면서 스키마를 적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¹⁴⁾ 이 읽기 전략은 자료의 구성을 통하여 학습자가 읽는 과정에서 체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읽기 자료 요인은

14) 노명완(1994), 읽기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제5회 국어교육발표대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읽기 교육과정 구성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읽기 지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어떤 읽기 자료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과정 구성에서 읽기 자료 요인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읽기의 주요 기능과 전략들

고등 학교 독서 과목에서는 읽기 기능을 ‘단어 이해 기능과 독해 기능’으로 나누고 독해 기능을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기능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초·중·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내용 체계에서는 읽기 기능으로 ‘단어 이해, 내용 이해, 평가 및 감상’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박영목(1993)에서는 읽기 영역의 중요한 평가 영역을 어휘력과 독해력으로 구분하고 독해 영역을 소단위 독해 기능, 대단위 독해 기능, 통합적 독해 기능, 독해 과정에서의 정교화 기능, 대인지 기능으로 세분하고 있다.¹⁵⁾

6차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국어 과목, 독서 과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 내용으로 제시된 읽기 기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기능>

● 어휘

-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알기
-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알기
- 단어의 함축적 정서적 의미 파악하기
- 비유적인 단어의 뜻 파악하기
-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 속담, 격언, 관용구 등 속어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15) 박영목(1993), 국민 학교 교육과정 해설, 제 5장 국어과, 교육과학사, pp. 290-291.

● 독해

-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알기
-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 지시하는 내용 파악하기
-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 글 전체의 짜임 파악하기
-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세부 내용 파악하기
-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과의 관계 파악하기
- 소재 파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 소재가 주제로 형상화되는 과정 파악하기
- 줄거리 간추리기
- 주요 내용 간추리기
- 글 전체 내용 요약하기
- 사실 표현 찾기
- 의견 표현 찾기
- 사실과 의견의 관련성 파악하기
- 장면, 분위기 파악하기
- 효과적으로 낭독하기
- 인물의 말 행동 비교하기
-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 세부 내용 추론하기
- 비유적인 표현 이해하기
- 표현의 특징 파악하기
-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 글 구성의 차이 파악하기
- 글의 표현의 차이 파악하기
- 글의 구성의 효과 평가하기
- 글의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 글 내용 전개상의 특징 파악하기

- 사건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 상상하기
- 설명 묘사의 적절성 파악하기
- 생각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부분 찾기
- 논지 관점의 차이 파악하기
- 논지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의도 목적 파악하기
-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 목적 파악하기
-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적절성 판단하기
- 관점, 논조, 문체의 차이 파악하기
- 관점, 논조, 문체의 일관성 여부 판단하기

위에서 제시한 읽기 기능은 크게 어휘력, 독해력으로 구분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어휘 관련 지도 내용들은 ‘기능’이기보다는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제공될 수 있으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기능’들처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한 위에 열거된, 독해와 관련되는 읽기 기능들 중에는 교수-학습의 일련의 과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로 어느 기능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략적 지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알기 →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 사건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 줄거리 간추리기’, ‘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 파악하기 → 주요 내용 간추리기 → 글 전체 내용 간추리기’와 같은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하는 내용 파악하기’는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알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알기’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사건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하기’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세부 내용

추론하기'는 독해의 전 과정과 관련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특정 기능이기보다는 '사실 표현 찾기, 의견 표현 찾기, 인물의 말과 행동 비교하기'와 같이 읽기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읽기 지도 내용의 이러한 측면은 '읽기 기능'의 분류가 갖는 애매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철우(1988)는 읽기에 대한 기능적 접근들은 기능들의 인지영역과 행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능의 명칭들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며 기능들 사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들 읽기 기능들을 독서 과목의 체계와 같이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기능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박영목(1993)의 분류대로 소단위 독해 기능, 대단위 독해 기능, 통합적 독해 기능, 독해 과정에서의 정교화 기능, 대인지 기능으로 체계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국어 과목의 내용 체계대로 단어 이해, 내용 이해, 평가 및 감상 기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기능의 세분화는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각 단계의 읽기 수준을 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6차의 내용 체계 수준 정도로 묶어 제시할 때에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엇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읽기 기능을 어느 정도로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이론적인 타당성과 함께 실현 과정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기능들은 크게 보아 '글의 내용 이해'와 관련되는 것들과 '글의 구성 파악'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글의 내용 및 구성,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관련되는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어휘력 신장'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항목들의 진술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읽기 전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정도이다. 그러나 앞서 읽기 기능으로 분석된 것들 중에서도 전략적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16) 한철우(1988), 讀書 教育 研究 및 指導方案 探索, 논문집 제 3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2-4.

<읽기 전략>

- 국어 사전, 백과 사전 등 활용하기
- 지식, 경험, 문맥 활용하기
- 문단에서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찾아 관련되는 것끼리 묶기
- 제목, 내용, 소재 등과 주제 관련짓기
- 참고 서적, 신문 기사 등 활용하기
- 단어 분류하기

5차, 6차 교육과정에서 읽기 기능과 함께 읽기 전략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에 대한 인식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독해와 관련되는 전략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박영목(1995)이다. 독해 전략을 크게 ① 능동적인 독서 전략, ② 어휘 학습 전략, ③ 중심 내용 파악 전략, ④ 세부 내용 이해 전략, ⑤ 내용의 전개 방식 이해 전략, ⑥ 글의 비판적 이해 전략, ⑦ 글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전략, ⑧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 전략으로 나누어 각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절차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목(1995)에는 기능 수행에 동원되는 전략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독서 능력의 범교과적 중요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학습 방법으로서의 읽기 능력을 별도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 박수자(1994)에서는 지도해야 할 읽기 전략으로 ① 읽기 모형 전략, ② 글 구조 파악 전략, ③ 문단 관계 파악 전략, ④ 담화 구조 파악 전략, ⑤ 중심 내용 파악 전략, ⑥ 관계짓기 전략, ⑦ 문맥 단서 전략, ⑧ 예측하기 전략, ⑨ 재구성 전략, ⑩ 초인지 전략(자기 점검)을 들고 있다. '글 구조 파악 전략, 문단 관계 파악 전략'은 글의 형식과 관련되는 전략으로, '담화 구조 파악 전략, 중심 내용 파악 전략, 관계짓기 전략, 문맥 단서 전략'은 글의 내용 이해와 관련되는 전략으로, '예측하기 전략, 재구성 전략'은 독자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토대로 한 비판적, 창의적 읽기와 관련되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 읽기 영역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읽기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계열화하여 제시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된 것에 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읽기 자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다. 1차~6차 교육과정에서 읽기 지도를 위한 읽기 자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 와서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상에는 '읽기의 실제'라는 범주가 설정되어 있고 여기서 읽기 자료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내용 항목의 진술에서는 읽기 자료와 관련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진술된 내용으로 보아 어떤 성격의 글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읽기 자료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이 읽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여러 목적으로 쓰인 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읽기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을 좀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 자료 요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4. 읽기 영역 지도 내용의 체계화 예시(읽기 기능을 중심으로)

1차~6차 교육과정을 토대로 읽기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려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읽기 기능들을 좀더 포괄적인 수준으로 묶고 각 기능의 수행에 관여하는 전략들을 확인하고 이들 전략 및 전략이 적용되는 텍스트의 특성을 중심으로 각 단계의 읽기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읽기 수준을 제시할 때 읽기 기능 자체는 단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의 측면에서 차이를 둔다. 그리고 전략을 사용하여 읽게 되는 텍스트 측면에서 차이를 둔다. 읽기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되는 텍스트 요인으로서는 내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의 관련성 정도, 글의 길이, 글의 형식상의 특징, 내용 전개상의 특징 등을 고

려한다. 교육과정에서 각 단계의 읽기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른 제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읽기 수업에서 의도하는 읽기 능력의 신장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읽기 자료이다.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읽을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읽기는 읽기를 통하여 학습된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언어 사용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읽을거리를 교육적인 의도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 읽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략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독립적인 유능한 독자가 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읽기 전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련의 읽을거리가 개발되면 읽기 교육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발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읽기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읽기 자료에 대한 정보는 읽기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 자료에 대한 지침의 상세화는 읽기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료를 구성할 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지침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Doll(1993 : 180)의 지적대로, 앞으로의 교육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의하기 보다는 교실 수업의 주체들에 의해 조정되고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서화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그 제시 방법이 유연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6>은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 범주 중 읽기 기능 부분을 중심으로 전략과 읽기 자료 관련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로 표시함)들도 읽기 지도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다양한 읽기 활동(#로 표시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의 읽기 능력의 수준은 전략의 차이나 혹은 자료의 차이로 드러낼 수 있다.

< 표 6 >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예시

읽기 기능	읽기 전략	읽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의미 이해하기 •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 함축적 의미와 생식적 의미 • 비유적 의미 • 속담, 격언, 관용구 등의 속어적 표현 • 사전 사용법 •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 # 연상되는 단어들을 밝히기 # 단어 맞추기(버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부호나 그림 자료가 주는 정보 활용하기 - 사진 활용하기 - 문맥 활용하기 - 단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 한자어로부터 한자의 의미 직접 활용하기 -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 직접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에 대한 문맥 정보가 풍부한 글(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정보 및 생식 표현을 위한 글) ◆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 글 ◆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글→관련이 적은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소재(소재), 주제 • 중심 문장, 전개 문장 # 재복록하기 # 핵심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정보를 전술한 문장과 구체적인 정보를 전술한 문장 구별하기 - 글이나 문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보를 전술한 문장 찾기 - 글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생각 파악하기 - 문단에서 중심 문장의 위치 확인하기 - 중심 문장과 전개 문장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 - 중심 문장이 명시적이지 않을 때 중심 문장을 만들기 -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별하기 -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분 혹은 글 전체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중심 소재 찾기(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찾기) - 중심 소재의 제목의 관계 파악하기 - 중심 소재에 대한 시종문 찾기 - 제목과 관련지어 주제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문장이 드러나 있는 문단이나 글(짧은 글→긴 글) ◆ 중심 문장이 드러나 있지 않은 문단이나 글(짧은 글→긴 글) ◆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는 글(짧은 글→긴 글) ◆ 중심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글(짧은 글→긴 글) ◆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글→관련이 적은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내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생각을 적극 활용하여 이어질 세부 내용 예측하기 - 중심 생각과 연결지어 세부 내용 읽기 -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된 세부 내용 추론하기 - 세부 내용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글→관련이 적은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전개방식 이해하기 • 글의 형식 • 내용의 전개 방식: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연속적 순서, 예시, 분류 및 분석 # 이야기의 생략된 부분(앞부분, 뒷부분, 가운데 부분) 완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 파악하기 -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 사이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 글 전체를 구성하는 문단들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 - 글의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보편적인 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기 - 글의 형식과 그에 따른 글 구성 방식 알기 - 필자가 사용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 또는 문단의 중심 내용 활용하기 - 내용의 전개 방식에 관하여 필자가 사용한 단서 활용하기 - 글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의 계층적 구조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표지가 뚜렷한 글(짧은 글→긴 글) ◆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표지가 뚜렷하지 않은 글(짧은 글→긴 글) ◆ 글의 형식이 뚜렷한 글(짧은 글→긴 글/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 ◆ 글의 형식이 뚜렷하지 않은 글(짧은 글→긴 글/정보 및 생식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 ◆ 내용 전개 방식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글(짧은 글→긴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글의 내용 이야기하기 # 관련이나 논조가 다른 글과 비교하기 # 문제가 확인된 구별되는 글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 사실과 의견의 관련성 파악하기 - 사실과 의견의 타당성 여부 판단하기 - 실명 묘사의 적절성 파악하기 - 표현 및 구성의 효과 평가하기 - 드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필자의 의도, 목적 파악하기 - 필자가 제기한 주요 문제의 결론 확인하기 -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글자나 이유 파악하기 - 부정확한 논증이나 오류 여부 확인하기 - 독자의 감성이나 심사에 호소하는 필자의 주장을 냉철히 검토하기 - 관점, 논조, 문제의 연관성 여부 판단하기 -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적절성 여부 판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글→관련이 적은 글) ◆ 실재를 목적으로 하는 글→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 표현상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글 ◆ 내용의 전개 방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글

위에 제시된 기능 및 전략들은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에는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읽기 태도나 습관과 관련되는 것 및 학습 방법의 학습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읽기에 대한 개념적 지식에 관련되는 것들이 포함된다. 태도나 습관과 관련되는 부분 및 학습 방법의 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비교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표 1>~<표 5> 참조). 읽기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해당 단계에서의 읽기 기능의 수준과 관련지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지도 내용들을 교육과정이란 틀 안에서 제시할 때는 '자료+전략+기능', '전략+기능', '자료+전략', '전략+활동'의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왔다. 본 주제 및 관련되는 다른 논의들에서 읽기가 왜 중요하며 어떤 목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한 논의가 새삼스럽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읽기 교육의 본체는 학습자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 있다. 읽기 능력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습자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능력이다. 학교 교육에서 바탕이 길러진 읽기 능력은 학습자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읽기 학습이 필요 없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다 유능한 독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읽기 교육은 평생 교육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든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 틀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자

기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치밀한 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이미 교육이 될 수 없다. 읽기 교육은 그 결과 학습자의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읽기 영역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계는 이러한 계획의 시초이자 그 뒤로 이어질 계획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읽기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의 첫걸음을 지금까지의 읽기 영역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각 시기의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읽기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가르칠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계열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읽기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읽기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계열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읽기 기능을 여러 하위 세부 기능으로 나누어 체계화시키려 했던 3차 교육과정 시기를 고비로 읽기 기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서 5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다양한 읽기 활동이 도입되었고 6차에 와서는 이것이 더욱 체계화되어 읽기 전략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읽기 기능과 읽기 전략 그리고 읽기 활동이 혼재되어 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우선 읽기 지도의 내용을 6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읽기에 대한 개념적 지식, 읽기 기능 수행 과정에 요구되는 절차적 지식 그리고 읽기와 관련되는 바람직한 태도 및 습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러나 주로 논의된 부분은 읽기 기능을 어떻게 계열화할 것인가였다. 읽기 기능을 세분하는 방식보다는 읽기 기능 수행에 관여하는 전략들을 확인하고 이 전략 및 전략이 활용될 읽기 자료의 자질을 밝히는 것으로 계열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교과와 성격 및 목표 그리고 지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읽기 영역의 지도 내용으로 무엇을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도 이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정해질 사항이다. 이 의사 결정 과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읽기와 관련되는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제안은 지극히 시험적인 안에 불과하나 읽기 영역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차~6차 국민 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 곽병선(1986),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교육개발 42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봉순(1992), 읽기 評價에 관한 批判的 考察,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노명완·손영애·이인제·허천행·남미영(1986),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노명완·박영목·권경안 공저(1994), 國語科教育論, 갑을출판사.
- 노명완(1994), 읽기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제 5회 국어교육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1996),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김대행)에 대한 토론, 教育課程研究 제 14권 제 2호.
- 박갑수·손영애·유학영·윤희원·이인제(1994), 제 5,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국어교육연구소.
- 박경숙·임두순·현주(1988),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 박수자(1995), 독해 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제 8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영목·이인제·손영애·신난수(1992), 제 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국민학교 국어과,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공저(1996), 국어교육학원론, 교학사.
- 박영목(1993), 국민 학교 교육과정 해설, 제 5장 국어과, 教育科學社.
- _____(1995), 독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교육 제 8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6), 언어이해론, 법인문화사.
- 손영애(1986),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국어교육 제 57·58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0),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학술 세미나 자료집.
- _____ (1994),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國語教育學研究 제 4집, 國語教育學會.
- 신세호·김성훈·김홍원 외(1991),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대규(1995), 國語 教科의 論理와 教育, 教育科學社.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손영애·김창원(1995),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상
세화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제 2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상
세화 및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천경록(1995),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학 제 13집, 청람어
문학회.
- 한철우(1988), 讀書 教育 研究 및 指導 方案 探索, 논문집 제 33집,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5), 독서 지도의 개선 방향, 독서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독
서학회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 허경철 외 6인(1993), 고등학교 교과별(공통수학, 공통과학) 국가수준 평
가 기준 개발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Doll, William E., Jr.(1993), 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N. Y. ; Teachers College Press.
- Department for Education(1995), The National Curriculum, England,
DFE. The Univ. of the State of New York
-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Bureau of Elementary and Second
Curriculum Development(1983), English Language Arts.